

# 전략공천맨 姜·李 탈당 무소속 단일화 가능성 경선맨 공정한 룰 확보경쟁...선거전 치열할듯

**뉴스초점** 새정치, 광주시장 후보들 향후 행보는  
**강운태·이용섭 지지층 화학적 결합까지는 미지수**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후보 경선 실시 여부에 따라 광주시장 선거 판도는 요동칠 전망이다.  
경선이 실시된다면 룰 전쟁과 함께 예비 후보들의 피 말리는 경선전이, 전략공천이 강행된다면 무소속 출마와 후보 단일화 등 피 뒤기는 선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략공천 강행=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공천을 강행할 경우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 후보단

일화의 단계적 수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강 시장과 이 의원은 1일 공동 결의문을 통해 “전략공천이 강행된다면 두 사람은 사랑하는 당을 잠시 떠나 비상한 각오로 오직 시민과 함께 횡포에 맞서 싸우기로 결의했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이 모두 탈당후, 무소속 후보로 나설 경우 표가 나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후보 단일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은 정치적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 후보 단일화는 광주시장 선거판을 뒤흔들 전망이다. 관건은 전략공천의 부당성에 대한 광주민심의 공감대 형성이다. 전략공천에 대한 민심의 반발이 현실화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무소속 단일 후보는 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광주시장의 기초단체장, 기초·광역의원 후보 공천이 ‘나뉘먹기’로 이어질 경우 무소속 바람은 ‘태풍’으로 변질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두 사람의 단일화가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까지 이를 것인지는 미지수다.  
◇공정 경선 실시=새정치민주연합 지

도부가 광주시장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한다면 우선 ‘경선 룰’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단 당 지도부는 전략공천 카드를 철회했다는 점에서 100% 공론조사식 배심원제를 경선 룰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경선은 인지도가 낮은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에 불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은 여론조사 50%+공론조사 50%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두 후보는 중앙당이 그동안 전략공천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공론조사 100%가 경선 룰로 정해질 경우 배심원단이 왜곡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 국회의원 5명 가처분 ‘결정시점’ 논란

새정치 광주시장 일부 당원, 공천심사 마무리 시점 실효성 지적

법원 “심문기일 급히 결정할 만한 사정 알려지지 않았다” 해명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이 광주시장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포함된 데 대해 일부 당원들이 이들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과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경선관리 의 공정성이 심대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과 법조계에 따르면 고모씨 등 당원 3명은 지난달 24일 “박해자, 장병완, 임내현, 김동철, 강기정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이 광주시장 공관위에 포함된 것은 잘못됐다”며 광주지법에 이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광주지법 민사 21부(이창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8일 심문기일을 정했다. 재판부는 통상 심문기일 며칠 후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결정될 즈음이면 광주시장 공천심사가 마무리된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들은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한 국회의원들이 공관위 추천위원장

법원측은 이에 대해 “심문 기일을 정할 때 급히 결정할 만한 사정을 알렸다면 고려할 여지도 있었지만 이 사건 신청서에는 공천심사 일정, 급히 결정해야 하는 이유 등과 관련한 설명이나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의총 대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운데)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길 공동대표. /연합뉴스

## 새누리 이정재 광주시장 후보 예비후보 등록

본격 선거운동 돌입

새누리당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정재 광주시장 위원장이 1일 광주시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별도의 출마 기자회견을 생략하고, 이날 시장 관계자들과 함께 조용히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이 위원장은 보도자료 통해 “광주의 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장이 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선(先) 광주, 후(後) 정치’를 내세운 그는 “광주가 먼저이고, 정치는 그 다음”이라며 “광주의 큰 아들이 돼 광주발전을 위해 정부와 중앙당, 국회의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예비후보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 도시 조성사업을 완성해 광주를 창조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특히 임기 중에 30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시장’과 창의적 교육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이 기회를 준다면 여당 시장으로서, 광주의 여러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정치 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오로지 광주 발전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지난 3월 25일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광주시장 단독후보로 확정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미뤄도 제창한다

강운태 시장, 기념곡 지정·제창 거듭 촉구

강기정·이용섭 의원 “미루지 말라” 성명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과 함께 기념식장에서 참석자들이 제창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례적으로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더라도 제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강 시장은 1일 열린 5월 직원정례회에서 “5·18 34주기가 임박했는데도 정부가 아직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기념곡 지정이 어려우면 기념식장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제창을 식순에 포함시켰으면 한다. 이마저도 안되면 그냥 우리끼리 제창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여야 의원 158명 찬성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이후 보훈처장과 국무총리가 기준

이 없다는 등, 국론분열이 우려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념곡 지정은 물론 제창까지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도 이날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을 5월이 시작되는 오늘까지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2008년까지 제창해오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갑자기 공연단 합창으로 하자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과 5·18단체가 국무총리와 국

회의장 등을 만나 올해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한다’는 기념곡 지정 절차와 시기 방법은 차후 국회와 정부 간 합의에 따르겠다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평화·민주·애국의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도 최근 5·18 기념곡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의 아픔을 간직하 5·18이 다가왔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5·18 기념곡 지정을 미루고 있다”며 “여당 내에서도 기념곡 지정을 찬성하는 의원이 상당수 있는 만큼 정부도 더 이상 기념곡 지정을 미루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 광주시 선관위원장에 김주현 광주지법원장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제25대 위원장에 김주현 광주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민주선거를 구현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어



임무로 생각한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투자자 모심"

(주)오천경매 H.P 010-3605-5000

**물건: 부동산 경매 진행 물건**  
**기간: 1년~2년 정도**  
**방식: 단독, 공동투자 방식**  
**자본: 1억원 이상**  
**수익: 상담후 결정**

### 경매투자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입찰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개인지도, 3개월 완성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분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